지역 백화점 문화강좌 확 달라졌네

신세계, 힐링 강화 … 고전·여행 테마 신설

롯데, 젊은층·남성전용 강좌 대폭 개설

저렴한 수강료, 우수 강사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 백화점 문화강좌가 새로운 변신을 꾀해 시민들을 찾는다.

6일 광주신세계 등 백화점 업계에 따르면 오는 9월 시작되는 문화강좌에 기존 인기 있는 힐링 관련 강좌를 강화하고 고전·교육·여행 등 새로운 형식의 테마 강좌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최근 아카데미 수강생 접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강좌 접수율이 전년동기대비 12%가량 증가했으며 명사특강에 대한 접수도 전년동기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광주신세계는 지난 가을학기보다 신규강좌를 50% 이상 확대·기획하고, 전문인 특강도 이번 가을학기에는 전년동기대비 25% 가량 늘리는 등 문화강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9월6일 차동엽 신부의 '희망의 귀환' 강좌를 진행하고, 9월12일에는 정호승 시인을 초청 '내 인생에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또 치유심리학자 김영아씨의 '세상에서 가장 멋진 시어머니 되는 법'(9월26일)과 윤영미 아나운서의 '행복의 조건' 강좌(9월27일)가 1000원의 수강료로 잇따라 열린다.

이와 함께 현대인에게 우리 민족의 정신적 뿌리가 되어주는 '전통'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문화강좌도 기획했다. '온고지신'(溫故知新)이라는 테마로 오는 9월부터 진행되는 이번 강좌들은 '고전문화''규방문화''문화기행''향토음식' 등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전통문화를 소재로 한다.

최근 백화점의 새로운 '큰 손'으로 떠오른 남성 고객을 잡기 위한 '남성전용' 강좌도 눈에 띈다. 남성만을 대상으로 문화센터에서 전용 강좌를 마련하기는 롯데가 처음이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문화센터는 가을학기부터 몸짱만들기 홈피트니스, 남자의 로망 RC(무선모형) 비행기 만들기, 남성 보컬트레이닝, 미스터쉐프 등 남성만을 위한 강좌를 대폭 늘렸다.

남성 전용 강좌 뿐만 아니라 젊은층을 위한 맞춤형 '영(Young) 강좌'도 대폭 개설됐다. 과거 백화점 문화센터가 40~50대 여성 위주의 고객층이 주로 이용했다면 최근 20대 젊은층 고객들로 연령층이 변화고 있기 때문이다.

최신 유행 트렌드 메이크업 따라잡기, 다이어트 재즈 댄스, S라인 몸매 만들기 요가교실 등 트렌디한 강좌들이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진행하는 '스페셜 미팅 1천원 기획강좌'도 이채롭다.

유지명 롯데백화점 광주점 문화센터장은 "최근 문화센터 이용 고객층이 다양해진 만큼 요구와 필요도 많아졌다"며 "트렌드를 반영한 단기 강좌와 전문성을 보강한 실속있는 체험형 강좌를 늘려 고객 만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지난 2월26일 광주신세계백화점 8층 아카데미 다목적홀에서 '소중한 나'라는 주제로 열린 요리연구가 이혜정씨 초청 명사특강 모습. 〈광주신세계 제공〉

대포통장 월평균 1천개 개설

농협 68%로 최다… 국민·외환·신한 順

올해 들어 매달 1천개의 '대포통장'(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 사용자가 다른 비정상적인 통장)이 개설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싱에 쓰인 대포통장 가운데 68.0%가 농협 단위조합과 농협은행에서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11년 9월 30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금환급에관한특별법 시행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피싱에 쓰인 대포통장이 모두 3만6417건이었다고 6일 밝혔다.

월평균 대포통장 개설 규모는 지난해 5월 1552건이었지만 정부가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를 포함한 불법사금융 척결에 나서자 같은 해 6월 424건, 7월 384건으로 대폭 줄었다.

하지만 대포통장 개설 규모는 올해 1월 다시 1195건으로 늘어나는 등 올해 상반기에는 월평균 925건에 달하고 있다.

계좌를 만든 뒤 사기에 이용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5일 이내인 경우가 50.9%였다.

대포통장 명의자를 살펴보면 개인이 전체의 97.8%(3만3360명)로 대부분이었고 법인은 2.2%(746사)였다.

개인명의자 3만3360명을 살펴보면 남성이 65.3%, 여성이 34.7%였고, 연령별로는 30~50대가 81.3%로 대다수였다. 사회초년생인 30세 미만 명의자도 12.0%에 달했다.

금융회사별로는 농협 단위조합(1만6196건)과 농협은행(8544건)에서 개설된 계좌가 전체의 68.0%(2만4740건)로 가장 많았고 국민은행이 4079건(11.2%), 외환은행이 1371건(3.8%), 신한은행이 1278건(3.5%)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농협 단위조합과 농협은행은 점포 수나 예금계좌 수 대비 대포통장 개설 비율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6월 광주·전남 농수산물 수출 16.3% 증가

4315만8000달러

6월 광주·전남지역의 농수산물 수출실적이 전년 같은달보다 1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광주·전남지사에 따르면 6월 광주·전남지역 농수산물 수출은 4315만8000달러로 전달(3711만4000달러)보다 16.3% 늘었다.

이 가운데 수산물 수출실적은 1565만3000달러로 전달(1293만9000달러)보다 21.0% 증가했고, 농산물 수출은 2750만5000달러로 전달(2417만5000달러)보다 13.8% 증가했다.

이는 지난 3월 전년 같은달과 비교해 18% 감소(수산물 36.8%↓, 농산물 1.2%↓)로 최대의 감소폭을 보인 이후 4월 1.8% 증가(수산물 17.4%↓, 농산물 16.8%↑), 5월 5.2% 증가(수산물 9.9%↑, 농산물 2.6%↑)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것이다.

한편 올해 6월 누계 수출실적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 증가(2억1365만1000달러→2억1695만달러)해 전달의 1.7% 감소(1억7653만5000달러→1억7355만5000달러)에서 증가세로 돌아섰다.

성창현 지사장은 "그동안 수출 물류비 추가지원, 환변동보험 보장내용 확대 등 수출 확대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며 "앞으로도 유망 바이어 초청 상담회 개최 등 우리 농식품 홍보와 수출기반 확대에 더욱 매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신용카드 가입한 해 해지해도 연회비 반환

금감원, 카드사에 이행 지시

금융감독원은 고객이 신용카드를 만든 해에 해지하더라도 잔여기간을 고려해 카드사들이 연회비를 반환하도록 지도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4월 '최초년도 연회비는 면제되지 않는다'는 신용카드 표준약관이 계약 시 거래조건을 정한 것이지 해지 시 연회비 반환과는 관련이 없다고 해석했지만 카드사들은 이후에도 최초년도 연회비를 제대로 반환하지 않아 왔다.

실제로 금감원이 올해 6월 전업 카드사 8곳과 은행계 카드사 12곳을 점검한 결과 신용카드를 가입년도에 해지할 경우 5곳(전업 1곳, 은행계 4곳)은 연회비를 돌려주는 반면 다른 15곳은 제대로 돌려주지 않고 있었다.

이들 가운데 10개사는 회원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만 연회비를 돌려줬고, 다른 5개사도 콜센터를 통해 해지신청을 한 회원에게만 최초년도 연회비를 반환했다.

2013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미반환 된 최초년도 연회비는 8개 전업 카드사에서만 13억9천만원(14만8천897건)이다.

금감원은 그간 관행에 따라 카드사들이 직원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한데다 최근 연회비 반환에 관한 여전법시행령 개정 추진으로 전산시스템 마련에 시간이 걸리고 있어 연회비 반환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가입년도에 신용카드를 해지하는 회원에게 최초년도 연회비를 합리적 기준에 따라 돌려주고, 올해 3월 신용카드 표준약관 개정 이후 반환하지 않은 최초년도 연회비도 돌려줄 것을 지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최초년도 연회비를 제대로 돌려주지 않는 카드사는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농어촌공사 사장 선임 절차 착수

한국농어촌공사가 박재순 사장의 퇴임으로 공석중인 신임사장 선임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6일 농어촌공사는 비상임이사와 농민단체, 외부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7일 임원초빙공고를 통해 사장 후보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모집기간은 7~16일로 임추위는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후보자를 결정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추천하게 된다.

전임 박 사장은 임기가 1년여가 남아 있었으나 "임명권자에게 부담을 주기 싫다"며 지난달 19일 자진 사임했다.

한편 농어촌공사 후임 사장으로는 권오을 전 국회 농수산위원장, 이상길 전 농수산부 차관, 배부 농어촌공사 부사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농기계수리 무상 순회봉사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종수)는 6일부터 7일까지 완도농협 고금지점(고금도)와 약산지점(조약도)에서 농기계수리 무상순회봉사를 해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농협전남본부 제공〉